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직무훈련·취업 ‘원스톱’ 지원 고용노동부 등과 4자 업무협약

2025. 9. 26.



(왼쪽부터) 현대중장비운전전문학원 김기호 원장,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박수현 최고인사책임자, 고용노동부 박철준 고용정책장,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양재덕 원장이 MOU를 기념하고 있다

■ CFS, 고용노동부 고양지청·현대중장비운전전문학원·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과 고용 협력체계 구축

2025. 09. 26.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고용노동부 및 지역의 직업훈련 기관과 손잡고 지속 가능한 고용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CFS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현대중장비운전전문학원,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과 함께 ‘고양·파주지역 직업훈련생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5일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고용노동부 박철준 고양지청장,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양재덕 원장, 현대중장비운전전문학원 김기호 원장, CFS 박수현 최고인사책임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양·파주지역 직업훈련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물류산업의 특성에 맞는 전문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한다.

박철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물류산업의 성장으로 관련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자동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대표적인 물류기업과 지역 훈련기관이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가,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재덕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원장은 “물류산업은 이제 AI와 자동화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물류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 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호 현대중장비운전전문학원 원장은 “쿠팡 물류센터는 높은 수준의 안전지침을 운영하고 있어서 교육생들을 더욱 꼼꼼하게 지도하고 있다”며 “협약으로 훈련생들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박수현 CFS 최고인사책임자(CHRO)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고용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 직무 훈련을 마친 직업훈련생들이 취업 고민 없이 쿠팡 물류현장에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